

군대에서 복학을 하게 된 스물두 살 차정우. 대학교 기숙사에 자리가 없어 학교 주변에 자취할 집을 알아보다 행복 빌라를 알게 된다. 정우는 아버지와 행복 빌라의 1층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다. 학교와 그리 멀지 않아 걸을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마저 근처에 있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좋은 환경이었다. 정우의 본가와 학교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정우는 방을 둘러보기 전부터 위치가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싶었다. 곧 집주인이 오고, 정우는 대충 방을 둘러보았다. 큼직한 방과 작은방 두 개가 딸린, 혼자 살기엔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정우는 체육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 기구를 놓을 공간이 필요했고, 집주인 유정 씨가 정우의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집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을 제시해 계약을 성사 시킨다.

행복 빌라에는 입주 조건이 있었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었으나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조항들에 정우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다.

#### 행복 빌라 입주 조건

1. 집주인의 부모님은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노인이 집주인의 부모라고 주장할 경우 절대 대답하지 말고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주십시오.
2. 행복 빌라에 606호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방은 605호입니다. 606호로 와달라는 집주인의 문자를 받는 경우 무시하고 집주인에게 알려주십시오.
3. 우리 빌라의 관리실은 1층과 6층에 있습니다. 다른 층에서 관리실을 볼 경우 절대 관리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관리실에 들어가는 경우 책상 밑에 숨고 눈을 감은 채 기다리십시오.

•  
•  
•

설령설령 읽는 걸 알아차린 걸까, 유정 씨는 조항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던 정우의 손목을 붙잡았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키세요.”

무미건조한 듯 꿰뚫어 보는 말에 정우는 몸을 굳혔다. 또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머리 하나 정도 차이 날 것 같은 자신보다 작은 키, 뺨뺨 마른 몸에서 긴장한 자신의 동기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악력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우의 몸을 굳혔던 다른 이유는 유정 씨의 손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웠기 때문이다. 정우는 무의식적으로 유정 씨에게 붙잡혔던 손목을 매만졌다.

#### 차정우가 행복 빌라로 입주하는 날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사는 수월했다. 집을 알아볼 땐 “너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어엿한 성인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신경 쓰이긴 하셨던 모양이었다. 정우의 어머니께선 집 청소를 할 동안 주민들에게 떡이나 돌리라며 정우에게 쇼핑백을 내밀었다. 정우는 극구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고 결국 현관문

을 나냈다.

(층별로 돌면서 주민들에 대한 소개)

1층은 마트와 경비실, 부동산이 있다. 2층부터 사람이 살고 있으며 각 세대를 10x호라고 부른다.

101호 :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사는 집이다. 아이들이 활기차서 인상 깊다.

102호 : 중년의 부부가 살고 있다. 인자한 성격으로 아이들이 활기찬 걸 즐기고 있다.

103호 : ??? 아직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104호 : 아픈 중년의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 우연히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늘 기침소리를 들어본 것 같다.

105호 : 집을 자주 비우는 20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 (마침 나가고 있던 여자와 마주쳐서 딱만 건네고 집을 자주 비운다는 애 끼는 104호 아줌마에게 전해 듣는다.)

106호 : 공실이다.

201호 : 히키코모리가 산다고 들었다.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없는 줄 알았고 나중엔 들은 얘기)

202호 : 아빠와 딸이 사는데 딸이 많이 아프다. 입원이라도 하는 건지 집을 자주 비운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없는 줄 알았고 나중엔 들은 얘기)

203호 : 공실이다.

204호 : 양옆, 그리고 위층이 비었는데 주기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항의를 한다. 기타를 치는 예술가라 그런지, 예민한 사람이니 주의하자.

205호 : 공실이다.

206호 : 남매가 살았는데 누나가 죽어 남자 혼자 산다고 들었다.

301호 : 마트에서 일하는 20대 남자가 살고 있다. 정우와 같은 대학을 다니며, 집안 사정으로 인해 휴학한 상태.

302호 :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공실이다. 듣기론 조만간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한다.

303호 : 공실이다.

304호 : 20대 후반의 남자가 산다. 괴팍한 성격 같아 보이니 조심하자.

305호 : ???

306호 : 회사원 언니와 고등학생 딸이 산다.

401호 : 매일 싸우는 커플이 산다.

402호 : 회사원 부부

403호 : ???

404호 : ???

405호 : 분명 공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택배 기사 집엔 늘 405호의 택배가 있다. 무슨 사정일까?

406호 : 독실한 교회 신자가 산다. 교회에 있느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501호 : 고등학생 손자와 노부부가 살고 있다.

502호 : 대학생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 전에는 룸메이트랑 살았는데 룸메이트가 자퇴를 했다고 들은 것 같다.

503호 : 커플이 살다 헤어져 여자 혼자 살고 있다.

504호 : 군인이 살고 있어 자주 비어있는 집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505호 : 공실이다.  
506호 : 야간 근무하는 30대 남자가 산다. 늘 다크서클이 심한 걸 보아 잠을 잘 못 자거나 근무가 힘든 것 같다.  
601호 : 1층에 있는 게 평범한 관리실이 어떠한 이유인진 몰라도 6층에 하나 더 있다. 평범한 가정집을 개조해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다.  
602호 : 교대로 일하는 경비원들의 숙소이다.  
603호 : 공실이다.  
604호 : 605호와 합쳐서 만들어진 큰 집이다. 집주인 유정 씨가 머문다.  
605호 : 집주인 유정 씨의 작업실이다. 서양화를 전공하여 유정 씨가 지내는 604호의 옆집은 605호에 작업실을 만들어냈다.  
606호 : 행복 빌라엔 606호는 없다.

한 번에 소개하는 것보단 사건(에피소드) 중간마다 몇 호씩 등장시키면서 소개하고, 정우 역시 마트 알바를 하며 301호 남자와 친해져 듣는 것으로 주민들을 비출 예정.

사건 1) 빨간색 고급 승용차 괴담.

행복 빌라 앞에는 1층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사전에 등록한 차들만 주차할 수 있다. 빌라 주민들 중 빨간색 차를 가진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공용 주차장에 빨간색 고급 승용차가 주차된다는 괴담이었다. 처음엔 고급 승용차를 가지지 못한 주민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괴담인 줄 알았으나, 핵심은 꼭 빨간색 차가 있는 날엔 행복 빌라 근처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생긴다는 말 역시 따라다니는 말이었다. 이 괴담을 들은 지 3개월 정도 들었을 까, 정우는 차츰 괴담을 잊었다. 마트 카트를 정리하던 정우는 마트 앞 1층 공용 주차장에 빨간색 차를 발견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퇴근하고 잠깐 잠에 든 정우는 매캐한 냄새에 잠에서 깬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환경은 행복 빌라 맞은편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채 타고 있는 모습이였다.

사건 2) 23일 수요일 저녁 8시 반 3층 계단 여자아이 괴담.

어느 23일 수요일, 오늘은 절대 계단으로 2층 이상을 올라가지 말라는 301호 남자의 말이었다. 3층과 4층 사이를 여자아이가 네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이라고. 꼭 23일 수요일 저녁 8시 반 이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간혹 이를 잊은 주민들은 이를 보고 기절을 하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말까지.

결말은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 괴상한 아파트 이야기로 내버려 둘지 이를 원인을 찾아 해결할지는 아직 미정. 사건 여러 개를 주민들을 번갈아 등장시키며 소개할 예정.